

# 수출 반토막 후산업...지원 없으면 180만 일자리 '휘청'

완성차·부품사 필요 유동성만 32조 "추가대책 시급"

자동차 산업 유관 고용인원만 178만명...후폭풍 우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경기불안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12%를 담당하는 자동차 부문도 비상이다. 완성차 브랜드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부품사들은 기존 고용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동차 산업 유관 고용인원만 178만명에 달한다.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연쇄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충돌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움직임에 발맞춰 각계 부처 역시 산업·업종별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에만 수출물량 40% 감소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계는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연이은 해외공장 가동으로 생산·판매가 급감하며 부품사들을 시작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서다.

실제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A사는 매출이 급감하자 현장직 단축근무와 순환휴무, 관리직 임금 20% 삭감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인천 남동공단의 현대차 협력업체는 부품 납품이 줄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더 큰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부품업체의 경우 기업어음(매출채권) 현금화는 물론 신규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공장가동

과 임금지급 등 공장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이 필요하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대출액만 2조 4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부품업체들의 낮은 신용등급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은 물론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태다. 회사채를 1차 만기에서 갚지 못한 기업은 24시간 안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더욱이 1차 부품업체의 가동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연간 7조 2000억원에 이르는 어음결제 지연에 2~3차 부품업체의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자동차 업계와 대책 간담회를 가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및

## 국내 완성차 5개사 4월 수출전망

	2019년 4월	2020년 4월 예상	감소대수	감소율
현대	9만368	5만5000	-3만5368	-39.1%
기아	8만9599	4만6000	-4만3599	-48.7%
한국GM	3만2819	2만2565	-1만254	-31.2%
르노삼성	7545	2044	-5501	-72.9%
쌍용	2006	980	-1026	-51.1%
합계	22만2337	12만6589	-9만5748	-43.1%

수출할력 제고방안에 포함된 내용 외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5차 비상경제회의와 함께 자동차 부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유동성 지원 등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 및 부품업체 지원에 필요한 유동성을 32조8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나온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품업체들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유동성 지원 방안은 기업어음(1~3차사 납품대금용) 국책금융기관 매입,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 등이 거론된다.

수요절벽 상쇄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구매력 집중과 친환경차 보조금 차등지급, 취득·개소세 감면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9

인 이상 승합차(화물차 포함)는 개소세 부과대상이 아닌 만큼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인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해소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상하위 20% 임금격차 4.5배로 완화...저임금근로 비중도 개선

임금 5분위 배율 0.17 ↓...전반적인 임금격차 감소

주요 임금분배 지표인 우리나라의 임금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50배로 1년 전보다 0.1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저임금근로자 비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전반적인 근로자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금 상하위 20%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50으로 계산됐다.

지난 2018년 임금 5분위 배율은 4.67이었다. 1년 만에 0.17이 개선된 셈이다.

다만 개선폭 자체는 2017년에서 2018년 0.39, 2016년에서 2017년 0.18보다 줄어 들었다.

임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평균임금은 지난해 1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 상위 20%인 5분위는 722만 1000원으로 2.5% 증가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17.0%로 전년보다 2.1%포인트(p) 개선됐다.

작년 6월 기준 중위임금은 278

만5000원이었다. 전체 분위의 평균 임금인 352만9000원과가는 차이가 있다.

임금 5분위 배율과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73원으로, 전년동월(1만9522원)보다 5.4%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완화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193원으로 4.7% 늘었고,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을 나타냈다. 격차가 전년보다 1.4%p 개선된 것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 2018년 68.3%로 꾸준히 나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동월(156.4시간) 대비 4.0시간 감소했다.

고용형태 별 근로시간은 정규직

165.2시간, 비정규직 112.1시간이 었으며,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66.6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0.6시간)의 근로가 길었고 단시간근로자(76.0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90% 이상을 유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0.7%p 증가한 90.3%였고, 그 중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94.4%로 0.2%p 감소했다. 비정규직이

74.0%로 3.2%p 늘었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 개선, 사회보험 가입률 차이가 축소돼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1인용 주방용품이 대세

지난 2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1인 가구를 위한 주방용품 선보이고 있다.

## 신입사원 입사 연령, IMF때보다 5살 많아

신입사원의 나이가 20여년 간 5세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조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5.1세였다. 2008년에는 27.3세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31.2세로 경종 뛰며 30대 신입사원들도 등장했다.

입사 평균연령 뿐만 아니라 입사 최고령 나이도 점점 높아졌다. 2017년 가장 나이가 많았던 신입사원은 30.3세, 2018년에는 30.9세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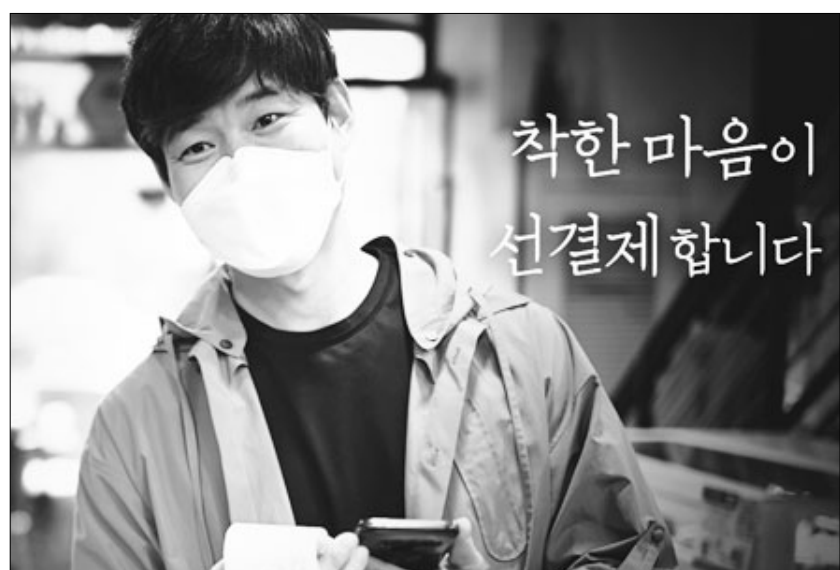
여성보다 남성 신입사원의 입사 연령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남성 신입사원의 경우 1998년 26세였던 평균 연령이 2008년에는 28.7세로 2.7세, 여성 신입사원은 같은 기간 23.5세에서 25.6세로 높아졌다. 2016년 인사담당자가 밝힌 남녀 입사 마지노선으로 남자는 평균 32.3세, 여자는 평균 30.3세로 집계되며 남녀 모두 20대가 아닌 첫 30대를 기록했다.

끝으로 올해 구직자가 생각하는 입사 마지노선은 평균 31.0세로 조사됐다. 남녀 각각 32.5세, 30.6세로 특히 남성 연령을 받을 할 경우 33세로 집계 이래 최고령이 등장했다.

##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80%로 확대

소상공인 선결제·선구매 기업...소득·법인세 세액공제 1% 적용 추진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배우 유준상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에 세액공제 1% 적용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한달 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이같은 내용의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우리동네 가게, 카페 등 소상공인·자영업 업소에 먼저 결제를 하고 재방문을 약속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소비자 운동이다.

우선 정부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선구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으로 현재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소상공인을 통해 4~6월 앞당겨 지급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일반 국민은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샷, 영수증 등을 간편히 등록 후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일반 국민 1000여명을 선정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소상공인 제품, 지역 특산물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배우 안성기씨, 유준상씨와 사진작가 강영호씨는 선결제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공익광고 출연 및 광고 제작을 함께해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민·관이 처음에 힘을 합쳐 진행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늘 그 자리에 두고 싶은 우리동네 식당, 내가 자주 찾는 단골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내게 하는 선결제 운동에 기업인, 공공기관,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연예인들도 동참했다. 가수 장윤정, 배우 김승현, 개그맨 조세호 등 여러 연예인들이 선결제 영수증 인증샷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양천구에선 통장 528명도 전국지치단체 최초로 3개월간 매달 제공되는 수당 30만원 중 50%를 양천사랑상품권을 구매, 선결제하기로 했다.

## 정부, 자가격리자에 농수산 먹거리 공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농수산물 분야를 지원하고 나섰다.

자가격리자들에게 농수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도 지원책의 일환이다. 식료품 구매가 자유롭지 못한 자가격리자들과, 제품이 팔리지 않는 농수산 업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셈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이슬 기자